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강 신 묵
<새생각회 회장>

하나를 붙들고 늘어져라

페인타는 병속에 든 알맹이가 상하지 않는 병마개를 발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마개가 발명되었는지 조사했다.

콜크마개, 고무마개, 금속마개, 나사마개, 끼움마개, 음료수마개, 약병마개, 화장품통마개 따위를 5년동안 육백 중 이상의 병마개를 수집했다.

그래서 드디어 현재의 사이다, 맥주 등에 쓰이고 있는 콜크를 안에 넣고 금속판을 덮은 마개인 왕관병마개를 발명하여, 소품발명왕이 됐다.

누구나 만일 연필깎이를 발명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어떤 연필깎이가 있는가 조사하라. 조그만 문방구만 찾아가도 4~5 종류는 팔고 있다. 우선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하고, 다시 백화점에서 조사하고, 다음에는 등근 막대기를 깎는 선반의 깎는 방법은 물론, 물건을 깎는 공구에 대한 같은 계통의 지식이 붙고, 그 위에 공부야 쌓여야만 백만명의 학생이 쓸 수 있는 연필깎이가 발명될 것이다.

이것은 발명의 한 정석이다. 그리고, 발명력이 있는 사람은 모방도 잘 한다.

아이디어를 짜내는 연구를 하고 있는 오스본은, 한 권의 책 이름을 붙이는 데 육백 중 이상의 이름을 생각해내어 여럿이서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는 제명을 골라내어 성공하고 있다.

606이란 독일의 에르리히가 육백 여섯번째 실험에서 합성해 낸 유기비소 화합물로 살발산의 약명을 갖고있다. 성병인 매독에 무방비상태였던 유럽에서 살발산의 발명은 획기적이었다. 그때문에 1908년 노벨 의학상이 수여됐다.

이처럼 같은 계통을 꾸준히 붙들고 늘어져야 훌륭한 발명을 낳게 된다.

머리대신 발로 생각하라

아이디어 창작법의 하나는, 소재를 모으는 일이다.

부지런히 필요한 소재를 수집하면 될 뿐이다. 발의 문제며, 열의의 문제다.

아이디어를 짜낸다는 것은 조용한 방안에서 가만히 책상앞에 앉아서 후우하며 담배라도 피우면서 연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제 1단계와 제 3단계쯤의 일이고, 제 2단계는 원칙적으로 걷는 단계다.

제 1단계에서 결정한 방향에 따라 필요한 소재를 수집하는 일을 해야 한다. 때로는 제 2단계에서 가만히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자기가 준비한 소재 곧 과거의 체험, 기억을 더듬는 작업이다.

기억은 재료의 창고이니가 아이디어를 짜낼 때, 우선 창고 속에서 준비된 것이 도움이 되는 소재가 있나 없나를 찾아낸다. 우선 나가 걷는 수고도 없고 그리고 손쉽다.

기억의 창고속에서 끌어낸 소재는 지금까지

자주 사용한 묵은 재료처럼 보이지만, 각도를 바꿔보거나, 현미경을 써서 보면 뜻밖에 이런 면이 있었는가 하는 새 발견을 할 때가 있다.

새로운 성질의 발견이란 새 소재를 손에 넣는 것과 같다. 우리들은 사물을 잘못 한쪽만 보고, 이것은 이렇다라고 잘라 생각하기 쉬운데, 사물은 결코 일면적인 것이 아니다. 좋은 본보기는 사람이다. 여자는 힘이 약한 것처럼 생각하나 불난 집에서 뜻밖의 힘을 내거나 평소에는 거만스러운 남자가 어려울 때는 짝 소리도 못하고 쥐구멍만 찾는 일파위는 그야말로 사람에게서는 실로 여러 가지의 얼굴이 있음을 보인다. 그러기에 기억의 재료를 끌어내어 무엇인가 새로운 면은 없는가? 잊고 있었던 점은 없었던가? 하며 조사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충분히 그 발명의 소재를 모아놓은 노련한 경험자만이 할 수 있다.

큰 업적을 남긴 발명가, 외관원, 학자들은 발바닥이 닳도록 걸어나다니면서 소재를 모았던 것이다. 발명하려면 우선 특허국에 산더미처럼 쌓인, 국내외의 특허공보를 열람하고 조사하라.

수집량이 발명 좌우

유명한 실바나이트금광의 무도사장은 “나는 1 온스의 금을 얻고자 4 톤의 광석을 뺏고, 체질하며, 화학작용을 더하기도 한다.”고 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선을 무엇으로 할까? 백금이면 될까? 대중이 값싸게 쓰게 강한 섬유는 없을까?” 하고 실험에 착수했다.

그렇게 실험한 것이 금속선이 육천 가지, 동물털을 탄화시킨 것이 이천 가지, 식물섬유 이천 가지였다.

그래도 생각처럼 안됐다. 때마침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던 부챗살이 되는 대나무를 보고 실험하여 비로소 뜻을 이루었다. 그러나 다시

조수를 일본에 보내서 일본산 대나무 350가지를 수집하여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랐다. 참으로 놀라운 탐구가였던 것이다.

에디슨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한 사람에 식물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붙은 버뱅크가 있다. 그는 식물의 품종개량으로 식물의 발명왕이라 불렀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은 나타났다.

주먹만한 감자가 태어났다.

가시없는 선인장이 무럭무럭 자랐다.

씨없는 자두가 주렁주렁 열렸다.

어째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까?

우선 큰 딸기를 알아보자. 그는 세계 각지에서 종류가 다른 딸기 오천 가지를 모아서 재배했다.

그것을 하나하나 조사했으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팔십만 오천 가지의 딸기를 재배하여 그것을 하나하나 교배했다. 그 속에서 단 하나, 미국종 산딸기와 러시아종 딸기의 교배로서 큰 딸기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의 농장에서 삼십만 가지의 복숭아, 육만 가지의 감을 가득 심었다.

이렇게 많이 실험하면 그의 육감은 놀랍게 민감해지고, 조그만 변종도 그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이처럼 하나의 발명을 완성시키자면, 착상의 양을 산처럼 쌓아올려야만 된다. 좋은 암시, 나쁜 암시, 작은 암시를 깡그리 쌓아올리는 작업이 발명이다.

양, 양, 양…… 그 속에서만이 성공의 열매를 딸 수 있으며, 아무리 서툰 포수도 표적에 일만 번 쏘면 명수가 되기 마련이다.

발명의 시작은 수집이며 그리고 실험이다. 탁상공론이나 공상만으로 발명하겠다는 생각은 어렵도 없는 노릇이다.

훌륭한 발명은 수집량으로 결정된다. 수집하자. 수집하자. 수집하자. <♣>